

# 개 회 사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이찬재

존경하는 대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제22차 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총회에 참석하시어 성황을 이루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대의원님 여러분!

최근 우리 건설산업은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정책변화와 고유가, 원고 등 대내외 불안 요인이 지속되고 있어 산업지표가 악화되고 있고, 특히 8.31, 3.30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른 주택건설의 각종 투기억제책과 지방 주택경기 침체, 내수둔화 등으로 주택경기가 위축되는 등 건설경기의 악화로 우리 설비업계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 이후부터 내수 회복세가 정체되고 수출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도 경

제성장률도 금년의 5% 전망에 비해 낮은 4.3%로 전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투자는 공공부문의 위축이 지속되면서 금년 하반기와 내년도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당면한 건설생산체계의 변동이후, 건설업계 전체는 물론, 입찰 및 하도급제도의 많은 변화 등으로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급변하는 건설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그다지 좋지 않은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임직원들은 조합원과 조합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창설당시 조합원사는 2,960개사 이었으나, 2006.9월말 현재 5,276개사가 증가하였으며, 자본금도 1,500억원에서 2,486억원이 증가한 3,986억원으로 166% 성장하였고, 좌당 지분액도 창설당시 82만4천원 보다 8만4천여원 많은 90만8천50원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대의원님 여러분과 조합원들께서 협조하여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조합운영에 내실을 기함으로서 조합 재무구조의 건전성에 지장이 없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금년 7월1일부터 그동안 예고해왔던 대로 전면신용 거래를 실시하여 조합원 연대보증에 따른 부담 없이 자기 신용만으로 조합과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조합원님들의 편익 제고를 위하여 보증기관 최초로 시행한 인터넷보증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시행 5년이 경과한 현재, 전체 보증건수의 80%를 넘어서고 있으며, 일반건설업체들과 협력하여 민간공사 전자보증(B2B)도 현대건설(주) 등 5개 대형 건설업체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협력대상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조합은 이에 그치지 않고 하자보증서 선발 급제도 신설, 계약 및 선급금보증 해제범위 확대 등 조합원의 편익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금년 1월1일부터 계약, 하자, 선급금 등 주요 보증의 신용거래 수수료 요율을 32.8%~ 23%까지 대폭 인하함으로써 조합원님들의 수수료 부담을 약 30억원 경감시켜 드린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예상되는 수익의 일정부분을 조합원님께 환원하여 경영활동에 도움을 드리고자 보증수수료 인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님 여러분!

오늘 총회에 상정된 내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주요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은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건설경기 성장둔화 등 여러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조합원의 업무지원을 위한 영업활동 예산을 반영하였고, 전면신용거래에 따른 조합재무구조 건전성 확보로 내실경영 기조를 확립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추정수익은 200억원으로

- 영업수익은 107억원,
- 영업외수익은 93억원으로 편성하였고,

○비용은 140억원으로

- 인건비 61억원,
- 경비 53억원, 기타 법정충당금 및 예비비 등을 2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총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한 세전이익을 60억원으로 하고, 법인세를 제외한 당기순이익을 43억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상정되었사오니 조합발전을 위하여 대의원님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내빈과 대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10.30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이 찬 재